

# 濟州書藝發達の史的考察

金 順 謙\*

目 次	
I. 序 論	4. 牧民官 書藝
II. 韓國書藝概觀	IV. 現存書蹟
1. 三國時代	1. 金石文
2. 統一新羅時代	2. 扁 額
3. 高麗時代	3. 名士筆蹟
4. 朝鮮時代	V. 現在の 書藝活動
5. 近代의 書藝	1. 書藝團體
III. 濟州書藝 形成過程	2. 元老書藝人
1. 序 言	3. 筆者의 筆跡
2. 郷土 書藝人	VI. 要約 및 提言
3. 流配 書藝人	

## I. 序 論

書藝란 文字를 媒體로 한 東洋特有的의 造形藝術이다. 그 用語에 있어서 韓國이 書藝, 中國은 書法, 日本은 書道라는 名稱을 使用하고 있다.

韓國의 書藝는 漢字文化圈에 속해 있었고 따라서 中國書法의 흐름의 영향을 받아 왔으므로 우리의 書藝史는 自然히 漢字가 主對象 位置에 있어 왔다. 한글은 14세기에 創制된 것이어서 그 사용이 오래지 않고 또 그것이 藝術的 가치를 발휘하기에 이른 것은 더욱 그 기간이 짧았다.

한자가 우리 나라에 언제 傳來되었는지 확실한 年代를 考究하기는 어려우나 직접 中國의 영향을 받았던 衛滿朝鮮 漢四郡時代가 아닌가 한다.<sup>1)</sup>

한자는 殷代의 甲骨文字를 위시하여 周時代의 金文, 石鼓文, 大篆, 秦代의 小篆,

\* 濟州道書藝家協會 會長, 望圓山房(書室) 代表

1) 國史大事典, 三榮出版社, 1984, p.1686.

漢代の 隸書, 魏晉代 楷行書 등으로 시대에 따라 文字가 변천되었고 사용하는 字體가 달랐다.<sup>2)</sup>

우리 나라는 中國의 書法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으므로 中國書家들의 書法을 그대로 받아들인 적이 많았다. 그 대표적인 人物로 中國의 書聖 王羲之(307~365)와 歐陽詢(557~641), 顏真卿(709~785), 趙孟頫(1254~1322) 등을 들 수가 있다.<sup>3)</sup>

그러므로 本考에서는 제주서에 발달의 根源을 窮究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 나라 서예를 시대별로 概觀하고, 제주서예의 形成過程을 살펴본 다음 濟州의 서예인과 流配書藝人, 牧民官들의 서예문화발전 과정을 詳考하고, 道內에 散在되어 있는 金石文과 扁額 등 書蹟들을 綜合的으로 밝힘으로써 제주서예문화의 과거를 나름대로 整理하고, 現在 書藝活動의 樣態를 概觀함으로써 未來를 照望하고 몇가지 提言을 하고자 한다.

## II. 韓國書藝 概觀

三國時代, 統一新羅, 高麗, 朝鮮時代, 近世로 나누어 時代別로 韓國書藝의 過去를 概觀하여 보기로 하겠다.

### 1. 三國時代

(1) 高句麗: 고구려는 韓半島의 北部와 南滿洲 일대를 疆域으로 하였던 강대한 나라로 長壽王(재위 413-491) 때 평양에 遷都할 때까지 國內城(현만주 輯安縣 通溝)을 中心으로 하여 번영한 나라이므로 通古일대와 平安道에 걸쳐 당시의 많은 古墳과 遺蹟들을 남기고 있다. 現存하는 遺蹟들로 「廣開土王陵碑」 「牟頭婁墓誌」 「平壤城壁石刻」 「中原高句麗碑」 등이 남아 있다. 「광개토왕릉비」는 碑身높이가 22척인데 東西古今에 유례가 없는 巨碑이다. 글자 수는 1,802字이나 판독할 수 있는 글자 수는 1,547자이다. 장수왕 2년(414)에 세웠는데 書體는 파임이 없는 大隸로 質朴雄渾하며 의연하고 능름한 感을 느끼게 한다.<sup>4)</sup> 이 碑文 拓本法帖 冊子가 나와 있다.<sup>5)</sup>

2) 平山觀月, 「新中國書道史」 有朋堂, 1965, 日本.

3) 任昌淳 「韓國書藝概觀」, 「韓國의 美」, 第6輯 - 書藝, 中央日報社, 1984, p. 178.

4) 裴吉基, 「삼국시대 서예」, 「韓國美術史」, 大韓民國藝術院, 1984, p. 172.

5) 「廣開土大王陵碑」 (雲林堂墨寶), 雲林堂, 1987.

「모두루묘지」는 고구려 好太王의 臣下이었던 牟頭婁의 묘지로 묘玄室 入口 문지방에 해당하는 부분과 左側壁面에 井間을 치고 약 800자의 墓誌를 楷書體로 墨書하였는데 輕妙飄逸한 感을 준다. 이 묘지는 일제말기에 발견되었고 광개토왕릉비 부근에 있다.<sup>6)</sup>

「평양성벽석각」은 장수왕 36년(449) 평양성을 修築할 때 성벽에 각한 것인데 조선조 純祖 29년(1829) 洪水로 성벽이 潰缺되었을 때 出土된 것이다. 이 刻石은 吳慶錫이 珍藏하였고 그의 아들 吳世昌의 跋이 있어 내력을 알 수 있다. 書體은 楷書로 썼는데 清末 康有爲(1858~1927)는 그의 著書 「廣藝舟雙楫」에서 書評하기를 高品下로 넣었다.<sup>7)</sup>

「중원고구려비」(국보 제205호)는 1979년 발견된 것으로 好太王碑를 축소한 것같은 方舟형으로 되어 있다. 書體는 호태왕비와 흡사하다. 이 비는 당시의 三國間의 關係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이 刻記되어 있어 歷史的인 면에서도 중요한 것이다.<sup>8)</sup>

(2) 百濟 : 백제는 漢文化의 영향을 깊이 받은 나라로서 中國 南朝와 내왕이 빈번하여 국제적 지위를 확립하였으며 博士 高興에게 國史인 書記를 編纂케 하였고, 佛敎를 비롯하여 漢文 등 많은 文物을 日本에 傳하였다는 사실로도 백제 문화의 深度를 짐작할 수 있으나 滅亡시의 擄掠과 장구한 세월동안 여러차례의 戰亂 등으로 因하여 文化財가 많이 逸失되어 현재까지 발견된 것으로는 「武寧王陵買地券」<sup>9)</sup>과 「砂宅智積碑」의 2種 뿐이다. 「무녕왕릉매지권」은 1971년 公州에서 발견된 것이다. 백제 제25대 무령왕이 薨去한 2년후(525)에 聖王이 父王의 屍身을 개장할 때 鐫刻한 것이다. 字體가 楷書이며 刻刀의 맛이 그대로 살아 있어 南北朝時代의 南朝의 書風으로 優雅하고 流麗한 傑作이다. 이것은 국보 제163호로 지정되었다.

「사택지적비」는 1953년 扶餘에서 발견된 것으로 碑文으로는 백제 유일의 것이며 서예사상 매우 중요한 것이다. 글씨체는 楷書인데 글은 駢儷體이며 書風은 南朝風으로 優雅整正하여 백제문화의 높은 수준을 상징하고 있다.<sup>10)</sup>

(3) 新羅 : 신라는 三國중 가장 뒤늦게 漢文化가 傳來된 나라이나 비교적 많은 遺蹟

6) 「國史大事典」, 三榮出版社, 1984, p. 475.

7) 「韓國美術史」, 前掲文, p. 173.

8) 上掲書, pp. 173-174.

9) 買地券은 墓地被葬者가 土地神으로부터 묘지買物契約形式의 文書

10) 「韓國美術史」, 前掲文, p. 176.

인 金石文이 남아있다.

「丹陽新羅赤城碑」(국보 제198호)는 1978년 1월 檀國大學校學術調査團에 의하여 발견된 石碑로서 신라가 竹嶺을 넘어 丹陽 일대의 고구려 영토를 차지하여 이곳의 백성들을 宜撫할 표적으로 세운 것이다. 서체는 예서풍이 있는 해서로서 진귀하여 書法研究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sup>11)</sup>

「昌寧新羅眞興王拓境碑」(국보 제33호)는 眞興王이 巡符의 事蹟과 隨駕人物의 列記 등을 刻記하고 있는 데 서체는 활달하고 古拙한 楷書체이다. 眞興王 22년(561)에 비를 세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2)</sup> 이 비는 경남 창녕군에 있다.

「威興黃草嶺巡狩碑」는 진흥왕 29년(568)에 세워진 것으로 다음의 磨雲嶺碑와 비문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서체는 六朝風의 楷書인데 매우 古樸遒勁하며 書品이 높다.<sup>13)</sup>

「威南利原磨雲嶺巡狩碑」는 진흥왕이 같은 해 8월 21일 여러 臣下들을 거느리고 국경 지대를 순시하고 민심을 살핀 것을 기념하여 세운 것으로 글씨는 앞의 황초령순수비와 같다.<sup>14)</sup>

「北漢山眞興王巡狩碑」(국보 제3호)는 진흥왕이 이지역을 순수하고 기념으로 세운 것인데 서체는 앞의 두 비와 같이 六朝風의 楷書이고 비의 옆면에는 조선 純祖 16년(1816)과 그 다음 해에 阮堂 金正喜가 실제로 답사하여 판독한 사실을 刻字한 題識가 있다.<sup>15)</sup>

「蔚州川前里刻石」(국보 제147호)은 先史시대의 遺蹟으로 추정되며 岩刻畫 下部의 磨崖銘은 가장 年代가 오래된 法興王時(514~539)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되는데 楷行書가 혼잡하여 낙서를 하듯이 새겨져 있다.<sup>16)</sup> 이밖에 眞智王 때(576~579)로 추정되는 「大邱塲作碑」와 眞平王 때(579~632)의 「南山新城碑」 등이 있다.

2. 統一新羅時代 : 신라는 三國중 가장 더딘 발전을 하던 原始後進國이었으나 唐과 提携하여 고구려와 百濟를 滅亡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마침내 한반도는 新羅王國으로

11) 「文化財大觀」 ①, 韓國文化財保護協會, 大學堂, 1993, p. 278.

12) 上掲書, p. 274.

13) 「韓國美術史」, 前掲文, pp. 178-179.

14) 「國史大事典」, 1984, p. 456.

15) 「文化財大觀」 ①, 1993, p. 270.

16) 「韓國美術史」, 前掲文, p. 180.

統一하게 되었다. 이 時期는 學術 文化 政治制度에 이르기까지 唐나라 제도를 도입하는데 분주한 때였으니, 使臣의 往來가 頻繁하여지고 留學生 僧侶들은 唐王朝의 찬란한 文物을 習得하면서 自國 新羅에로 傳來하였다.

國內에서는 讀書出身科<sup>17)</sup> 라는 科擧제도를 두어 官吏를 登用하였으므로 漢文學이나 書法의 大家들이 많이 輩出되었다.

統一新羅의 書蹟으로는 국보 제196호로 지정된 「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sup>18)</sup> 과 日本 東大寺 正倉院에 傳해오는 「新羅帳籍」<sup>19)</sup> 이 墨蹟으로 남아있고, 金石文은 「新羅太宗武烈王陵碑」<sup>20)</sup> 외에 각종 碑碣, 造像記鐘銘, 塔志, 石經 등 상당수가 남아 있다.

글씨체로는 統一新羅初期에는 南北朝時代부터 내려오는 王羲之(307~365 東晉)體가 주축을 이루었고 다음에는 唐의 歐陽詢(557~641)體를 많이 썼다.

우리 나라에서 해동 제일의 書聖, 金生(711~791)은 隸, 行, 草書가 모두 入神하였다 하여 높이 칭송되어 왔고, 末期의 崔致遠(857~915)은 詩文에서 뿐 아니라 글씨에 있어서도 時代를 대표한 名家였다. 그의 自撰自書한 「雙谿寺眞鑑禪師碑」<sup>21)</sup> 는 歐陽通(?~691 唐)의 글씨와 비슷한 神品이다.

3. 高麗時代 : 고려는 신라 때보다 일반적으로 漢文學이 발달되어 보편화 되어감에 따라 初期에 官吏의 登用方法으로 唐나라의 科擧制度를 그대로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므로 詩文이나 經書에 精通하지 않으면 출세를 할 수 없도록 制度化하였는데 그 내용 가운데 明書業科<sup>22)</sup> 가 있었다. 應試科目으로는 諺文과 五經字樣이 기본교양 시험이며 실기로 眞書·行書·篆書의 各體에 모두 통과되어야 했다. 이들을 養成하는 기관으로 國子監 안에 書學博士가 있고 각 관서마다 書令史, 書藝 試書藝, 書手 등이 있어 書寫를 담당케 하였으니 이런 제도의 完備로 書法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고려의 書家들이 남긴 書蹟은 墨蹟으로 몇점의 古文書와 寫經 數十卷이 있을 뿐이며 나머지는 碑碣과 墓誌 木板 典籍이다.

17) 新羅 때의 官吏 登用方法, 788년(원성왕 4) 시험 본위로 人材를 뽑기 위하여 讀書出身科를 두었다.

18) 국보 제196호로 지정된 이 寫經은 韓國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신라 景德王 13년(754) 緣起法師의 發願으로 만들었는데 현재 경기도 용인군 湖岩美術館에 소장됨.

19) 신라 西原京(淸州)지방 4개촌의 民政文書.

20) 국보 제25호로 지정된 신라 제29대 太宗武烈王陵碑, 경주시 西岳洞에 있다.

21) 국보 제47호로 지정된 「雙谿寺眞鑑禪師碑」는 眞聖女王 元年(887)에 세웠고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에 있다.

22) 科別 시험과목중 다섯번째.

高麗時代에는 佛敎를 國敎로 受容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碑碣이 모두가 寺刹의 行蹟碑와 高僧의 塔碑인데 書風은 唐初 大家의 筆法을 따랐다. 그 중에서도 歐陽詢의 書法이 盛行하였다. 이 歐法의 大家는 具足達, 韓允, 閔賞濟, 安民厚, 林顥, 吳元侯, 李元符, 張端說 등이며 金遠은 柳公權體를 따랐고 蔡忠順은 行書인 歐法을 體得하였다. 이상의 初期의 書家들이며 다음으로 獨自의 變化를 일으킨 釋坦然(1070~1159)은 王羲之와 六朝風의 筆意를 調合한 書體를 創案하였다. 그의 弟子 釋機俊도 坦然的 筆法을 遵奉한 名家였다.

毅宗 24년(1170) 武臣의 亂이 일어난 후에는 文學과 藝術은 後退하는 結果를 招來하여 書藝방면에도 影響을 받아 뛰어난 書家가 없는 실정이었다.

13세기 초반 忠宣王(1309~1313 재위)이 燕京에서 萬卷堂<sup>23)</sup>을 짓고 元의 書家 제1인자의 趙孟頫와의 交遊가 빈번하여지자, 따라간 文臣들은 趙의 書法을 배우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 때 李岳(1297~1364), 李齊賢(1287~1367) 등은 대표적인 書家였다. 이 밖에 고려후기의 書家로서 趙孟頫의 影響을 받은 사람은 成宗(982~997 재위) 文宗(1046~1083 재위), 李仁老(1152~1220), 韓脩(1333~1384), 成石璘(1338~1423), 申德鄰, 李詹(1345~1405), 權近(1352~1409), 權鑄(?~1394), 河演(1376~1453), 高德 등인데 이들이 자기가 체득한 趙孟頫 書風을 널리 보급하여 후세에 까지 발전의 길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sup>24)</sup>

4. 朝鮮時代: 朝鮮王朝는 建國 당시에 佛敎를 배척하고 儒敎를 崇尚하여 이를 政治敎育의 治國理念으로 삼으니 性理學派가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學界를 支配하기에 이르렀다. 鄭道傳(?~1398) 趙浚(1346~1405) 등은 朱子學의 대표인물로서 政敎의 지도이념으로 儒敎를 채택하는데 獻身한 開國功臣들이다. 朱子學의 信奉者로서 儒學的인 理想을 실현시키려는 이들이 書法이나 文學을 널리 보급하였으리라는 것을 추상할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은 書藝名家였다.

麗末鮮初 사람으로 朝鮮太祖建元陵神道碑를 쓴 成石璘<sup>25)</sup>(1338~1423)은 王羲之 筆法을 써서 絕妙의 域에 달하였고 申穡(1382~1433)은 隸草와 특히 大字를 잘 썼던 名家

23) 고려 忠宣王이 1314년 元나라 서울 燕京에 지은 讀書堂.

24) 任昌淳, 前掲文, pp. 181-182.

25) 金榮胤, 「韓國書畫人名辭書」, 漢陽文化社, 1959, p. 48.

였다.

朝鮮 初期에는 麗末에 들어온 趙孟頫 書風이 오랫동안 風靡하였다. 이는 忠宣王 때에 직접 그에게서 배워 온 영향도 있고 그의 眞蹟과 法帖이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조에 들어와서 趙孟頫의 書體 제1인자는 安平大君 李瑢(1418~1453)이다. 그는 好學하였고 글씨 뿐 아니라 詩文과 그림에까지 能한 大藝術家였다.<sup>26)</sup> 世宗 30년(1448) 가을에 創建한 觀德亭 扁額도 安平大君의 글씨<sup>27)</sup>였으니 제주도에도 그의 글씨가 보급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書藝復興期의 安平大君의 〈瀟湘八景圖卷〉을 보면 朴彭年(1417~1458), 成三問(1418~1456), 南秀文(1408~1443) 등 당시의 名士 30餘名이 自筆로 쓴 詩나 글씨가 모두 名品 아닌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밖에 成任(1421~1528), 金魯(1498~1548), 宋寅(1516~1584) 등은 趙體를 따라 楷書에 能했고, 崔興孝(?~1488), 金絳(1488~1534), 金麟厚(1510~1560), 黃耆老, 揚士彦(1517~1584) 등은 草書에 能한 名家들이다.

壬辰倭亂(1592~1598)을 前後하여 글씨로 이름을 떨쳤던 韓石峯(1543~1605)은 王羲之 書法을 체득한 大家로서 楷·行·草에 모두 通達하여 李朝 제1의 호칭을 얻었다. 趙孟頫체는 均整美에 치우쳐서 힘이 柔弱하여 輕薄한 感이 있고 性理學的 見地에서 별 餘韻이 없어 보인다. 韓石峯도 趙體를 배웠으나 進一步하여 蘭亭叙(行書) 東方朔畫贊(小楷) 등의 王體를 研磨하여 높이 評價를 받았다.<sup>28)</sup> 그 뒤에 尹淳<sup>29)</sup>(1680~1741 호 白下)은 各體에 精通하였고 弟子인 李匡師(1705~1777 호 圓嶠)는 創意的인 發상으로 書法의 正道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관된 노력을 다하여 특히 書訣을 지어 理論的 체계를 세우기에 힘을 기울였다.<sup>30)</sup> 이 시기의 많은 能書家가 있으나 지면의 제약으로 더 열거하지 않기로 한다.

## 5. 近代의 書藝

明朝가 亡하고 淸王朝가 樹立(1636)된 이후 韓國의 學者들은 淸國에 使臣 또는 隨行員으로 가서 그곳 학자들과 交遊하면서 많은 見識을 넓힐 수 있었다.

26) 任昌淳, 前掲文, p. 183.

27) 觀德亭의 扁額은 世宗大王의 세계 아들인 安平大君(李瑢)의 글씨이다.

28) 任昌淳, "韓國의 書藝", 「墨」 74號, 日本 東京, 藝術新聞社, 1988, p. 49.

29) 「韓國書畫人名辭書」, 1959, p. 309.

30) 上掲書, p. 327.

清代의 學術研究는 考證學<sup>31)</sup>이 주축을 이루었다. 文字에 대한 研究를 위하여 金石學이 발달되었으며 글씨를 쓰는 사람은 楷, 行, 草 이전에 篆隸의 筆法부터 체득하기에 이르렀으니 당시 法帖에만 의존하던 체본을 다시 碑書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書家들은 새 자료를 찾기에 힘썼고, 많은 石刻들이 새로 발견되어 清代 書藝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이 시기에 書法에서 碑學을 강조하고 帖學을 배제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를 제창한 學者는 阮元(1764~1849)이었다. 그는 「南北書派論」<sup>32)</sup>과 「北碑南帖論」<sup>33)</sup>을 발표하여 많은 학자의 지지를 얻었다.

韓國의 신진 학자들이 中國에 들어가서 翁方綱<sup>34)</sup>(1733~1818)과 阮元, 紀昀, 孫星衍 등 학자에게서 經學, 詩文, 金石, 書法에 대한 知識을 얻었는데 그들의 영향을 얻은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朴齊家(1750~1815), 李德懋(1741~1793), 柳得恭(1749~1772), 李書九(1754~1825), 申緯(1769~1845) 등이다.

다음으로 天才의 藝術家 秋史 金正喜(1786~1856)가 中國과 인연을 맺게된 것은 그의 아버지인 酉堂 金魯敬과 스승 楚亭 朴齊家の 도움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가 24세에 酉堂이 冬至副使로 燕京에 갈 때에 따라가서 弱冠 나이로 그 곳 巨儒 翁方綱, 阮元 등을 만나 結交面學하는 사이에 그들과 莫逆하여졌으며 그가 학문으로나 예술로 大成하는 계기가 되었다. 秋史의 글씨는 처음에 顏眞卿과 董其昌을 따랐으나 中國에 왕래한 뒤에는 歐陽詢體를 썼고, 書法의 根源을 西漢隸에 두었다.<sup>35)</sup> 나머지는 제주유배인편에서 논하겠

다. 秋史와 같은 시기에 秋史의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權敦仁(1783~1859), 曹匡振(1772~1840), 李尚迪(1804~1865), 許維(1809~1892), 趙熙龍(1797~1859) 등은 우수한 작가들이다.

이 밖에 能書家들로 李三晩(享年 70餘歲), 趙寅永(1782~1850), 朴晦壽(1786~

31) 李熙昇,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81, p.256.

32) 東·晉·宋·齊·梁·陳의 글씨는 南派라 하고 趙·燕·魏·齊·周·隋의 글씨는 北派라 한다.

33) 北方의 글씨는 碑學에서 전승되었고, 南方은 法帖으로 전승되었기 때문에 北方의 楷書는 古代의 隸法을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으나 南方에서는 일찍부터 書法의 근원인 隸意를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書法의 정통을 찾기 위하여는 北碑를 배우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34)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卷九, 大修館書店, 日本, 1961, (昭和 61), p.104.

35) 任昌淳, 「韓國書藝概觀」, pp.188-189.



1861), 李裕元(1814~1888), 李昞應(1820~1899), 韓應應(1821~1892), 吳慶錫(1831~1879), 金弼準(1831~1915), 丁學教(1832~1914), 金聲根(1835~1918), 金嘉鎮(1846~1922), 金玉均(1851~1893), 池雲英(1852~1935), 尹用求(1853~1936), 鄭萬朝(1858~1935), 閔泳翊(1860~1914), 朴泳孝(1861~1939), 洪鍾時(1857~1936), 閔泳煥(1861~1905), 鄭丙朝(1863~1945), 金圭鎮(1868~1933), 吳世昌(1864~1953), 俞昌煥(1870~1935), 金敦熙(1871~1936), 安鍾元(1874~1951), 李始榮(1870~1953), 金九(1875~1949), 李道榮(1884~1933), 金台錫(1875~1953), 金錫翼(1886~1959), 申翼熙(1891~1956), 許百鍊(1891~1977), 高順欽(1893~1977), 孫在馨(1903~1981), 柳熙綱(1911~1976), 崔重吉(1914~1980), 朴世霖(1925~1975) 등이다.

### Ⅲ. 濟州書藝 形成過程

#### 1. 序 言

제주도는 韓本土와 멀리 떨어진 독립된 地域社會로서의 特殊性을 지니고 地理的 歷史的 文化的 側面에서 內陸地方과는 環境이 顯著하게 다른 與件으로 발전하고 변천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옛적에 耽羅國으로서 독립국가적인 명맥을 유지하여 온 시기가 있었고, 11세기에 들어와서 高麗의 한 郡으로 편입되고 그 以後 朝鮮朝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제주에 언제 漢字가 傳來되었고 書藝가 발달하여 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漢字가 제주도에 언제 傳來되었는지 확실한 年代를 밝히기는 어려우나 耽羅國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았던 나라는 삼국시대 백제이다. 「三國史記」 「百濟本記」 文周王條에 보면 “文周王 2년(476) 4월에 탐라국이 方物을 바치므로 王은 기뻐하여 그 使者에게 恩率벼슬을 주었다”<sup>36)</sup> 라는 문헌으로 보아 漢字가 이 시기를 전후하여 제주도에 傳來되었음을 추상할 수 있다. 그러나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까지 1300년을 지내오는 동안 濟州書藝人으로 문헌에 기록된 사람은 고려 원종 때 탐라의 星主 高適 한 사람뿐

36) 金富軾, 「三國史記」, 明文堂, 1986, p. 427.

이니 長久한 세월동안 절해고도 제주도는 각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外患과 收奪을 당하며 苦難의 역사를 면치 못하는 原始的 狀態가 오래 持續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다만 이 시기에 글씨를 잘 썼다 하더라도 문헌에 기록할 만한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朝鮮王朝가 建國하면서 中央集權的 政策에 의해 본도에도 지방교육기관으로 官學인 鄉校를 세우고 마을에는 私學인 書院, 學堂, 書堂을 세워 教授, 訓導 또는 師長, 訓長 등을 두어 가르치게 하였으니, 學問水準이 向上되어 書藝 보급이 촉진되었다. 한편 行政을 관할하는 牧使와 判官 등 官吏들도 文武兼備한 學識이 높은 사람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조선왕조의 정책은 그들이 도입한 文化나 思想을 그대로 제주도에 보급하였으니, 제주도의 文化가 中央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전기를 이룩해 놓았다.

둘째, 제주도는 朝鮮時代 5백년을 통하여 政治犯들이 流配를 오거나, 조선왕조에 저항하여 隱居하기 위하여 定住하는 避難地이자 流配地였다는 사실이다. 이들 流配된 사람들은 王族, 重臣들과 學者, 文人들이니 이들 가운데는 한 시대를 風靡하던 歷史的인 人物이 적지 않았으므로 제주문화에 미친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sup>37)</sup>

세째, 앞에서 말한 牧民官 流配人들이 제주에 머무르는 동안 이 지방 土着民들은 자연히 그들과 접촉하면서 學問에 通達한 그들로부터 새로운 知識과 學問을 배우면서 師弟之義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學者, 文人, 書藝人들이 배출되었다.

## 2. 鄉土 書藝人

高適：濟州人으로 高麗 平章事 高兆基의 孫子이다. 호는 谿林이고, 耽羅의 星主로서 1261년(고려 원종 2)에 科擧에 오르고 벼슬이 翰林學士에 이른다. 1272년(원종 13) 三別抄의 亂이 平定됨에 留摠管이 되어 특히 도민들을 安集시켰다. 그는 文章에 能하고 筆法에도 뛰어나 王께서 칭찬하신 바 있었다.<sup>38)</sup>

高得宗(1388~1452)：濟州人으로 字는 子傳이고 호는 靈谷이며, 시호는 文忠이다. 1427년(世宗 9) 文科重試에 급제 벼슬이 禮曹參議, 戶曹參議, 漢城府尹 등을 역임하였다. 1438년(세종 20) 進貢使로, 1441년(세종 23)에는 聖節使로 明에 奉使하였고 1439년

37) 「濟州道誌」(上) 제주도, 1982, pp. 364-391. & 「濟州文化藝術白書」, 한국예술문화단체연합회 제주도지회, 1988, pp. 28-29.

38) 「韓國書畫人名辭書」, 1959, p. 37.

(세종 21) 通信使로 日本에 가서 所任을 다하였다. 그는 文章과 書藝가 뛰어났다. 海東號譜에는 “常帶修文提學, 文筆皆遍古”라 하였다.<sup>39)</sup> 現存 遺筆로 弘化閣 三字와 木刻板이 三姓祠에 保存되고 있다.

高得中(?~1466) : 濟州人으로 星主 高臣傑의 孫子이며, 字는 希中이고 1435년(세종 17) 文科에 급제, 上護軍 中樞院 副使 등을 역임하였다. 善書하여 濟州筆苑에 收錄되었다.<sup>40)</sup>

金良弼(生没年未詳 : 1520년(中宗 15)에 제주에 流配은 金淨은 그의 風土錄에서 生員 金良弼 외에는 글을 아는 자가 매우 적다고 하였다. 그는 能文善書하여 中宗 때 司馬試에 급제하여 그 후에 濟州鄉校 教授가 되었다. 1534년(중종 29) 沈連源 牧使가 到任하여 明倫堂이 燬하여 學生들이 공부하기에 어려움을 보고 金良弼과 의논하여 1536년(중종 31)에 明倫堂을 重修하였고, 明倫堂에 그의 懸板詩가 있으며 白鹿洞規는 바로 그가 쓴 것이다.<sup>41)</sup> 濟州筆苑의 한 사람이다.

金繼興(1647~1701) : 光山人으로 字는 盛卿이며, 1676년(숙종 2) 殿試 文科에 급제하여 벼슬은 權知成均館 學諭로 있다가 學錄 學正 博士로 累進하고 그 후에 內贍寺 主簿 司憲府 監察, 成均館 典籍 등을 역임하고 通訓大夫에 敘하였다. 翰墨으로 擅名 濟州筆苑에 收錄되었다.<sup>42)</sup>

邊聖遇(1721~1787) : 原州人으로 字는 會叔, 호는 瀛軒이며, 1763년(영조 39) 文科에 급제하고 벼슬이 承政院 注書, 成均館 典籍과 直講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書法에도 能하여 지금 濟州鄉校 明倫堂 懸額은 그가 朱子書體를 筆意로 쓴 것이라고 전한다.<sup>43)</sup>

吳靄(1764~1834) : 和順人으로 字는 時之, 호를 靄坡라 하고, 1786년(정조 10) 司馬試에 급제하였으나 벼슬길에는 나가지 않고 學業에만 전념하였다. 그는 筆法이 뛰어났고 松雪(趙孟頫)體를 잘 써서 湖南名筆로 일컬어졌다. 제주筆苑의 한 사람이다.

姜師孔(1772~1863) : 晉州人으로 호는 塞井이며 大靜鄉校 訓長으로 후진 교육에 힘썼다. 1840년 秋史 金正喜가 대정현에 謫居하자 그와 교유하고 대정향교 疑問堂 懸額을

39) 上揭書, p. 61.

40) 「增補耽羅誌」, 담수계, 1954, p. 391.

41) 「濟州先賢誌」, 제주도, 1988, p. 253.

42) 「增補耽羅誌」, 前揭文, p. 391.

43) 「濟州先賢誌」, 1988, pp. 295-296.

請하여 글을 받고 그것을 조각하여 걸었다.

安永綬(1806~1872) : 順興人으로 字 公履, 호는 東山이며, 1834년(순조 34) 司馬試에 급제하였다. 吳靄 門下에서 修學하여 能文善書하였으나 벼슬에는 나가지 않았다. 濟州筆苑의 한 사람이다.<sup>44)</sup>

金龍徵(1809~1890) : 金海人으로 字는 慶雲이고 호는 靜軒이며, 1843년(헌종 9) 司馬試에 급제하였는데 濟州향교에서 訓學에 전념하여 많은 門人을 배출하였다. 1855(철종 6) 啓聖祠를 건립할 때 그 懸額은 그의 글씨다. 博學善書하여 濟州筆苑에 收錄되었다.<sup>45)</sup>

姜道渾(1816~1912) : 晉州人으로 字는 汝天, 호는 仙茶이며 大靜에 살았다. 1840년 秋史 金正喜가 이 곳에 謫居하자 그에 師事하여 書體를 得達하니 首弟子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蘭을 잘 그렸다. 濟州筆苑의 한 사람이며 그의 遺墨이 濟州도일반동산문화재로 收錄되었다.<sup>46)</sup>

金九五(1822~1900) : 金海人으로 字는 一彝이고, 호는 蘇齋이며, 好學善書하였으므로 濟州에 유배 온 金正喜에게 師事하여 秋史體를 체득하였다. 그가 19세 때 秋史가 그의 글씨를 보고 開聖天의 賦才가 어찌 北斗의 밑 南極의 邊에 있었는가 하고 그를 칭찬하니 그도 또한 精進하여 濟州필원으로 손꼽히었다.<sup>47)</sup>

朴奭瞻(1824~1850) : 密陽人으로 本名은 奎安이고, 호는 慈叚이며, 秋史 金正喜가 濟州에 謫居하니 그에 師事하였다. 秋史體를 得達하여 首弟子가 되었고, 秋史가 1848년(헌종 14) 풀려서 돌아갈 때 隨行하였는데 客死하였다. 그는 濟州筆苑중의 한 사람이다.<sup>48)</sup>

李啓徵(?~1914) : 全州人으로 字는 慶運, 호는 二樂堂이며, 性理學의 大家인 畿湖의 碩學 蘆沙 奇正鎮의 門人으로 李蒼岩의 筆法을 배웠으며, 自己流의 독특한 浮雲流水體를 創案 名筆로 이름을 떨쳤으며 師傅인 蘆沙로부터 인정을 받아 二樂堂이란 堂號를 지어받았다. 그는 增補耽羅誌 筆苑조에 「善 李蒼岩 法」이라 記錄되었다.

44) 上揭書, p. 302.

45) 上揭書, p. 264.

46) 「濟州道一般動産文化財」, 濟州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1, p. 129.

47) 「濟州先賢誌」, 1988, p. 265.

48) 上揭書, p. 294.

金炳胤(1838~?) : 金海人으로 字는 元之 호는 道村이며, 好學하여 1880년(고종 17) 司馬試에 급제하였다. 그는 能文善書하였는데 특히 韓石峯體에 능하여 濟州筆苑에 收錄되었다.<sup>49)</sup>

洪鍾時(1857~1936) : 南陽人으로 字는 中立이요, 호는 研農이다. 1897년(光武 1) 濟州에 流配은 雲養 金允植과 三隱 李承五, 筠庭 吳慶林에게 師事받아 특히 詩文과 書法에 通達하였다. 隸書와 行書에 뛰어났던 研農은 秋史體를 得達하여 三姓祠의 「乾始門」, 觀音寺의 「梵鍾樓」 外都의 「月臺」碑, 明月鎮의 「明月臺」碑, 大靜의 「秋史金先生謫廬遺墟碑」 등 많은 遺筆을 남겼다. 그는 秋史體를 善書하였다고 濟州筆苑에 收錄되었다.<sup>50)</sup> 著書로 「阮堂先生書法總論」 「歐書法派碑」 「眉叟先生篆東海碑」 「研農手墨」 「賀璋瓊詢帖」 등을 남겼다.

金熙璿(1863~1898) : 金海人으로 字는 士衡이고 호는 農隱이며 金羲正의 門人으로 能詩善書하였다. 그는 楷行에 能하여 濟州筆苑에 收錄되었다.

金熙斗(1864~1904) : 金海人으로 字는 子連이며 호는 樂泉이다. 能文善書하여 한 때 濟州觀察府主事를 역임한 후 濟州鄉校訓長으로서 教育에 전념하였다. 著書로 樂泉集이 있고 濟州筆苑에 收錄되었다.

張聖欽(1867~1955) : 仁同人으로 字는 典義이며, 호는 一軒이다. 18歲에 增廣試에 及第 嶺南巨儒 舫山 許薰(義兵將)의 門下이며 舊韓末 新學校의 敎員을 역임했다. 徵士 奇字萬의 지은 「判官 高景暎 墓碑」, 震翁李膺鎬가 지은 「耽羅王子后文公之墓碑」를 썼다. 글씨는 秋史體를 따라 잘 썼다. (朝鮮襄興勝覽에 書倣秋史金正喜). (1993. 10. 24. 碑書, 現地 確認)

金錫翼(1886~1956) : 光山人으로 字는 鴻漸이요, 호는 心齋이다. 獨立志士 金錫允의 아우이며 朝雪台 12同志의 한 사람이다. 浮海 安秉宅에서 修學하여 能文能通한 濟州의 碩學이다.<sup>51)</sup> 筆法에도 뛰어나 많은 作品이 傳해지고 있다. 史學에 조예가 깊어 著書로 「耽羅紀年」, 「心齋散稿」, 「檣域詩話」 등이 있는데 특히 「탐라기년」은 鄉土史學徒들의 指針書가 되고 있다.

吳泰稷(生死年未詳) : 和順人으로 吳靄의 아들이다. 호를 小林 또는 汝濱이라 했다.

49) 上揭書, p. 266.

50) 「增補耽羅誌」, 1954, p. 393.

51) 禹樂基, 「濟州道 國民觀光」, 韓國地理研究所, 1980, p. 86.

1834년(순조 34) 司馬試에 급제하였다. 父親에게 修學하여 能文善書하였다. 제주筆苑의 한 사람이다.

高順欽(1893~1977) : 濟州人으로 太學教授 菱峯 高性謙의 아들이다. 字는 無己이며 號는 竹岩이다. 獨立運動家이며 書藝家인 그는 1914년 京城專修學校를 졸업하였다. 平生을 祖國 獨立運動에 헌신한 그는 大韓獨立團 秘書責과 大韓勞動共濟會 庶務幹事<sup>52)</sup> 朝鮮通信中學館을 創立 中學講義錄 보급에 注力하였으며, 日本으로 건너가 1937년 大阪에서 「朝鮮書道研究所」를 設立하여 秋史 金正喜, 蒼岩 李三晩 書法을 研究 보급하는데 盡力하였으니 그의 思想的 抗日運動의 한 方法이기도 하였다. 그는 특히 日本人이 秋史를 研究하여 文學博士가 된 藤塚鄰의<sup>53)</sup> 활동상황을 밝히면서 韓國書藝의 優秀性을 널리 弘報 보급한 愛國的 人物이다. 1945년 祖國이 光復되자 日本에서 朴烈 등과 居留民團을 創設 中央總本部 議事會 議長으로 活躍하였다. 글씨는 王右軍, 秋史, 蒼岩體를 따라 得達하였다. 遺筆이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제주도 일반 동산문화제에 收錄되었다.

金容河(1896~?) : 光山人으로 字는 達字이며 호는 愚堂이다. 京城帝大 法文學部를 卒業하여 敎育界에 投身, 大邱師大 初代學長, 文敎部 首席獎學官, 高麗大 敎授 등을 역임하였고, 書藝에도 뛰어났던 그는 「제주 4.3暴動」이 한창이던 1949년 濟州道知事로 就任하여 사태수습에 全力을 다 했다.<sup>54)</sup> 遺墨이 제주도 일반동산문화제에 收錄되었다.

姜升樞(1899~1963) : 晉州人으로 字는 心日, 호는 松岩이다. 書藝에 능하였으며, 1934년 日本에서 수상하다 하여 大阪 鶴橋警察署長室에 連行되었는데 署長이 민족을 冒瀆하는 言辭를 하자 卽席에서 署長의 책상을 뒤엎고 말했다. 이로 因하여 그는 公무집행죄로 6개월 옥고를 치렀고, 출옥 후 滿洲로 건너가 抗日運動으로 始終하다가 해방을 맞았다.<sup>55)</sup>

康用範(1900~1953) : 信川人으로 字는 正夏요 호는 修菴이다. 韓末에서 倭政때까지 살아 名筆이란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그의 아우가 奇堂 美術館에 展示室을 마련하여

52) 慎鍾慶, "조선노동공제회의 창립과 노동운동", 「한국의 사회신분과 사회계층」, 文學과 知性社, 1986, pp. 71-201.

53) 藤塚鄰, 「清朝文化 東傳の研究」, 圖書刊行會, 日本 東京, 1975.

54) 「濟州道誌」(下), 濟州道, 1982, pp. 1003-1004.

55) 「濟州道誌」(上), 濟州道, 1982, p. 418.

修菴 作品을 전시하고 있으나 거의 같은 시기에 쓴 것들이라 筆法을 논하기는 어렵다.<sup>56)</sup> 는 評을 받고 있다.

金光秋(1905~1983) : 金海人으로 호는 聽灘이다. 書藝家이며 寫眞, 盆栽, 陶藝, 壽石 등 藝術方面에 多才多能한 선비형인 그는 瀛洲研墨會長을 다년간 連任하면서 후배 들 양성에 힘썼다. 1977년에는 제주도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주도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의 글씨는 古法을 벗어남이 없이 內剛純朴하여 楷行體를 잘 썼는데 遺墨이 시중에 많이 남아 있다.<sup>57)</sup>

洪貞杓(1906~1992) : 南陽人으로 호는 晚農 또는 圓山이다. 敎育者이자 書藝家이며 民俗學者인 그는 平生을 敎育界에서 헌신하였다. 제주도 문화재위원을 역임하였고, 1965년에는 書藝人 모임인 瀛洲研墨會를 創立하여 초대회장으로 10여년간을 역임하면서 후진 양성을 도왔다. 한편 隨時로 蒐集 愛藏하여 온 古文書, 書蹟, 繪畫, 寫眞, 工藝, 民俗 資料 등 2백수십점을 1967년 2월 25일 私設 「濟州美術館」을 당시 제주도문화관 1층에 開館하여 도민들에게 무료관람케 하였다. 그는 鄉土文化 保存과 宣揚에 기여한 공로로 1963년 11월 제2회 제주도문화상과 1967년 11월에는 제1회 제주도공익상을 수상하였으며, 1985년 11월 27일에는 서울신문사 제정 제5회 향토문화상 대상을 수상하는 榮譽를 안았다.

晚農 死後 다음 해인 1993년 7월 18일 앞에 적은 美術品과 家藏品 등 530점을 그의 뜻에 따라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부인 黃寅玉 女史의 명의로 무상기증하는 美學를 행하였다. 晚農 글씨는 祖父인 研農의 書風을 따랐는데 古拙純朴한 篆隸를 잘 썼다.<sup>58)</sup> 著書로는 「濟州島 民謠解說」이 있으며 鄉土研究關係論文을 다수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濟州筆苑에 收錄된 能書家로는 高益普, 金尚斌, 洪範孝, 宋仁福, 金炳旭, 金箕性, 白龍鎮, 金魯鉉, 金炳奎, 文在旭, 洪鍾彦 등이 있으나 資料未備로 略傳 기록을 생략하고 다음 기회에 보완기로 한다.

또 近來 제주書壇에 이름을 남긴 金昌河, 崔濟斗, 夫達善, 金性澤, 金時顯, 高景賢 등 故人들도 다음기회에 增補기로 한다.

56) 「濟州道一般動産文化財」, 1991, p. 138.

57) 필자 수집한 자료에서 밝힌 것임.

58) 필자 수집한 자료에서 밝힌 것임.

### 3. 流配 書藝人

金 淨(1486~1520) : 慶州人, 字 元冲, 호 冲菴 1507년(中宗 2) 文科 壯元及第, 벼슬이 刑曹判書에 이른다. 1519년 己卯土禍에 連座 다음해 8월 21일 제주에 流配, 謫居中 濟州風土錄을 著述하였다. 遺墨이 筆史大觀에 收錄되었다.<sup>59)</sup>

宋象仁(1569~1631) : 嶺山人 字 聖求, 號 西郭, 1605년(宣祖 38) 文科及第, 光海君 때 刑曹佐郎으로 있다가 禍를 입어 10년간 제주에 謫居하면서 儒生들을 訓學하였다. 1623년 仁祖反正이 성공하자 成均館 直講을 거쳐 南原府使와 全羅監司를 역임하였다. 그의 遺墨이 筆史大觀에 傳한다.<sup>60)</sup>

鄭 蘊(1569~1641) : 草溪人으로 字는 輝遠, 호를 桐溪라 하며 1610년(광해군 2) 文科及第. 벼슬은 大司諫 副提學 吏曹參判 등을 역임하였으며, 丙子胡亂 때 斥和를 主張하다가 10년간 大靜縣에 귀양살이 했다. 이곳에 謫居하면서 地方儒生들을 訓學하였다. 諡는 文簡이고 橋林書院 松竹祠에 配享하였다. 著書로 桐溪集이 있으며 遺筆이 槿墨과<sup>61)</sup> 歷代名人筆蹟에 傳한다.

洪茂績(1577~1656) : 南陽人으로 字는 勉叔, 호는 白石, 諡는 忠貞, 1615년(광해군 7) 生員, 持平, 掌令, 大司憲, 工·刑·兵曹判書 등을 역임. 1647년(인조 25) 姜嬪의 獄事에 연좌되어 旌義縣에 流配됐다. 孝宗이 卽位하자 풀려나와 知義禁府事를 거쳐 右贊成을 역임하였다. 天性이 溫厚하고 詩書에 能하여 當世에 이름이 높았다. 遺筆이 槿墨에 傳한다.<sup>62)</sup>

宋時烈(1607~1689) : 恩津人으로 字는 莢甫, 호는 尤庵, 諡는 文正이다. 金長生의 門人, 司馬試에 壯元及第, 鳳林大君의 師傅, 벼슬이 左·右議政에 이르고, 李珣의 學統을 계승한 畿湖學派의 巨儒로 老論의 領袖이다. 尤庵은 제주에 謫居하는 동안 橋林書院에 祝文을 지어 보내기도 하였다. 그는 글씨에도 뛰어났는데 松雪(趙孟頫)體를 따랐으며 大字를 잘 썼다. 지금 五賢壇 서쪽 암벽에 새겨진 「曾朱壁立」의 大字는 그의 글씨 모본이다. 橋林書院에 배향되었으며<sup>63)</sup> 遺墨이 槿墨과 歷代名人筆蹟에 傳한다.

59) 「筆史大觀」, 興土園出版部, 1988, pp.101-102.

60) 上揭書, pp.447-448.

61) 「槿墨」(上卷)附錄, 成均館大學校 博物館, 圖書出版青文社, 1981, p.37.

62) 上揭書, p.43.

63) 「濟州先賢誌」, 1988, pp.119-121.



李 健(1614~1662) : 宣祖大王의 第7子인 仁城君 珙의 아들. 字를 子強 호는 葵窓, 1628년(인조 6) 아버지의 죄에 연좌, 제주에 流配되었다. 1637년(인조 15) 풀려났으며 1657년(효종 8) 海原君에 봉해졌다. 글씨를 잘 쓰는 한편 그림에 능하였으므로 三絶이라 일컬었다. 그는 8년을 제주에서 지내는 동안 「濟州風土記」와 「濟襄日錄」을 지었는데 당시 제주사정을 연구하는데 貴重한 史料이다.<sup>64)</sup>

申 鉉(1642~1725) : 平山人으로 字는 華仲 호는 竹里 寒竹堂, 諡號는 忠景이다. 1686년(숙종 12) 文科及第 延安府使를 거쳐 大司諫, 大司憲, 工曹判書 등을 역임하였다. 辛壬土禍로 老論의 重鎮들이 제거되자 이를 항소하다가 1722년(경종 2) 제주도 柑山村에 流配되었다. 1724년 영조가 即位하니 풀려나와 돌아가는 도중 海南에서 병사했다. 그는 詩와 書에 뛰어나 槿墨<sup>65)</sup>과 筆史大觀에 收錄되었다.

金春澤(1670~1717) : 光山人으로 字는 伯雨, 호는 北軒이다. 詩文에 뛰어나고 글씨도 名筆이었으나 黨爭의 渦中에서 流配를 거듭하여 불우한 일생을 보냈다. 1706(숙종 32) 제주도에 유배되었는데 父親(金鎮龜) 謫居時 門下生인 吳廷賓, 高萬瞻, 鄭敏選 등과 제주지방 儒生들을 訓學하였다.<sup>66)</sup>

金正喜(1786~1856) : 慶州人으로 字는 元春이요 호는 秋史 또는 元堂 禮堂 老果 등 무려 250에 이르는 호를 隨意適所에서 使用하였다. 그는 考證學 金石學 書畫家로 有名하다. 1819년(순조 9) 文科에 及第 벼슬이 大司成을 지나 吏曹參判에 이르렀다. 1840년(헌종 6) 尹尚度의 獄事에 연루되어 제주도 대정현에 流配되었다. 秋史는 제주유배 9년 동안 歷代의 名筆을 연구 그 장점을 모아 獨特한 書體가 완성되었으니 특히 隸書와 行書에는 전무후무한 境地를 개척했다. 또한 그가 59세때 李尚迪에게 師弟間의 의리를 지킨 것에 감탄하여 그려준 「歲寒圖」는 현재 國寶 제180호로 지정될 만큼 매우 유명하다. 그는 제주에 귀양살이 하는동안 姜道渾, 金九五, 朴癸瞻 등 首弟子와 珍島의 書畫家 許小痴를 養成하였으니 그 밖에 그에게 영향을 받은 제주儒生들이 적지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특히 그는 書藝觀으로 “文字香 書卷氣”<sup>67)</sup>를 주장하였다. 著書로 『秋史集』 『金石過眼

64) 上揭書, p. 113.

65) 「槿墨」(下卷), 1981, p. 11.

66) 「濟州先賢誌」, 1988, p. 122.

67) 豊嶋嘉穂, 「韓國의 書, 歷史의 끝까지 金正喜와 副島種臣」, 月刊書藝, 1993, 10月號, 미술문화원, 서울, pp. 36-42. “文字香”이란 철저한 입서와 古碑의 연구에서 솟아나오고 고법의 風格을 의미하며 “書卷氣”란 수많은 독서와 학습을 통하여 형성되는 차원 높은 知的 세계를 의미하고 있다.

錄」, 「實事求是」 등이 있다. 遺墨으로 秋史名品帖이 있으며 權墨과 歷代名人筆蹟에 收錄되었다.

崔益鉉(1833~1909) : 慶州人으로 字는 贊謙 호는 勉庵이다. 朝鮮조 高宗 때의 정치가이며 排日派의 巨頭였다. 그는 1855년(철종 6) 文科及第, 持平, 掌令, 戶曹判書 등을 지냈으며 景福宮 重修, 書院철폐 등 大院君의 정책을 비판하다가 1873년(고종 10)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勉庵은 고종 12년 제주 謫居에서 풀려났을 때 吾羅里의 선비 李基璠 등을 대동하고 漢拏山에 등반하였는데 등산을 마치고 「遊漢拏山記」를 썼다. 이 기행문은 번역이 되어 현재 고등학교 國語教科書에 실을 정도로 名文이었다. 그는 乙巳條約 후 義兵을 일으켜 日本軍에 대항하여 싸웠으나 敗戰, 日本對馬島에서 파란 많은 일생을 마쳤다.<sup>68)</sup>

著書로 「勉庵集」이 있으며 遺筆이 筆史大觀에 收錄되었다.

金允植(1835~1922) : 朝鮮末의 文人, 書藝家, 政治家, 清風 사람으로 字는 洵卿 호는 雲養, 1874(고종 11)에 文科에 及第, 벼슬이 吏曹判書에 이르고 金弘集 內閣에서는 外務大臣이 되었다. 金允植은 閔妃 弑害事件을 방관했다는 탄핵을 받고 1897년(광무 1) 제주도에 終身流刑 되었다가, 다시 智島로 移配된 후, 1907년(융희 1) 特赦로 풀려났다. 그는 1898년 謫家에서 書畫를 즐기는 文人들이 모여 「橘園」詩會를 조직하였는데 雲養 金允植 三隱 李承五 등 謫客 7名, 霞山 鄭顯龜, 篠雲 黃炳郁 등 도내 耆儒학자 5名, 道村 金炳胤, 研農 洪鍾時 등 도내 文人 11名 등 모두 23명이었다. 이들은 자주 모임을 갖고 詩書會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도내의 文化遺跡을 두루 遍歷하기도 하였으니 이때 金允植을 中心으로 한 유배인들과 지방문인들의 활동은 濟州의 漢文學 발달을 크게 촉진했고 中央과 地方의 文化交流에 크게 기여했다.<sup>69)</sup> 金允植의 글씨는 「權墨」 소재의 行草書簡은 마치 朱憲의 글씨를 보는 듯한데 필획마다 轉折이 있고 方圓이 어우러진 청량한 맛을 풍기는 필체이다.<sup>70)</sup> 著書로 「續陰晴史」, 「天津談草」, 「雲養集」이 있다.

李承五(1837~1901) : 韓山人으로 字는 奎瑞, 호는 三隱, 22歲에 文科及第, 벼슬이 大司諫, 漢城府判尹, 吏曹·禮曹·工曹·刑曹·兵曹判書를 거쳐 弘文, 藝文館의 提

68) 「濟州先賢誌」, 1988, pp. 131-136.

69) 上揭書, pp. 138-142.

70) 「韓國美術事典」, 대한민국예술원, 1985, p. 129.

學, 侍講院 左賓客 등 官界要職을 거의 역임한 巨物政客이었다. 그는 閔妃가 弑害되었을 때 廢后告廟文을 지었다는 理由로 1897년(광무 1) 제주에 流配되었다. 李承五는 같이 유배되어온 金允植과 「橋林」詩會를 조직하여 濟州의 漢文學과 書藝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sup>71)</sup> 그의 遺墨 篆書 10曲屏을 濟州市 일도1동 金鉉禹가 珍藏하고 있다.<sup>72)</sup>

朴泳孝(1861~1939) : 李朝末의 정치가 藩南사람으로 字는 子純 호는 玄玄居士, 哲宗의 사위로 錦陵尉가 되었다. 高宗 19年 修信使로 渡日 日本을 視察하고 돌아와서 政治的 改革을 기도했다가 甲申政變의 失敗로 日本으로 亡命했다. 그 후 귀국하여 金弘集 內閣의 內部大臣이 되었다가 高宗 폐위 음모로 다시 일본에 망명, 1907년 귀국 李完用 內閣의 宮內府大臣에 임명되고, 대신 암살음모 사건으로 동년 8월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제주에 정이 들었던 朴泳孝는 1년간의 禁錮刑期가 끝나도 떠나지 않고 園藝農事를 경영하면서 살았는데 성공한 작물에 대하여는 도민들에게 권장하였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近代사상을 강론하면서 새로운 文明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길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그의 주변에 모이는 도내 선비들로 金膺銓, 金膺斌, 金昌鎬, 金鍾河, 宋斗玉, 蔡龜錫, 金亮洙, 金熙斗, 洪鍾時, 崔元淳, 張容堅, 蔡洙康, 安秉宅, 金弘翊, 金根蕃 등이 있었는데 그의 人格에 감동되어 존경심을 가졌다. 朴泳孝는 韓日合邦이 되자 일본정부에 의해 侯爵이 되었으며 일본귀족원 의원이 되었다.<sup>73)</sup>

그는 글씨에도 뛰어나 遺筆이 權墨에 收錄되었다.

#### 4. 牧民官 書藝

崔滋(1188~1260) : 고려 康宗때의 文臣, 海州사람으로 字는 樹德, 호는 東山叟이며, 文科에 급제, 尚州司錄, 國學學諭, 給田都監錄事, 尚州牧使, 濟州副使(고려 고종 초재임), 忠淸, 全羅道 按察使를 거쳐 中書侍郎平章事를 역임하면서 善政을 베풀었다. 詩文에 뛰어나 당대에 크게 문명을 떨쳤다. 遺墨이 筆史大觀에 收錄되었다.<sup>74)</sup>

71) 「濟州道誌」(上), 1988, pp. 370-372.

72) 「濟州道一般動産文化財」, 1991, p. 147.

73) 「濟州先賢誌」, 1988, pp. 142-148.

74) 「筆史大觀」, 1988, pp. 1155-1156.

金方慶(1212~1300) : 고려 후기의 名將. 安東人으로 字는 本然. 소년시절에 과거에 급제. 벼슬이 兵部尚書, 翰林學士에 이르고, 1273년(원종 14) 行營中軍兵馬元帥로서 三別抄를 쳐서 이를 完全히 평정하였다. 忠烈이라 諡하다. 어려서 志學하였으며 善書하였다.<sup>75)</sup>

奇虔(?~1460) : 世宗때의 清白吏, 幸州人으로 호는 靑坡이며, 1443년(세종 25) 9월 濟州牧使로 除授되었는데 在任하는 동안 清白한 牧民官으로 善政을 베풀었다. 1451년(문종 1) 開城府留守를 거쳐 大司憲이 되었다. 諡는 貞武, 遺筆이 筆史大觀에 傳한다.<sup>76)</sup>

沈連源(1491~1558) : 靑松人으로 字는 孟容, 호는 保庵이며, 諡는 忠惠이다. 1526년(中宗 21) 重試文科에 급제하여, 司憲府監察, 禮曹, 吏曹佐郎을 거쳐, 1534년(중종 29) 9월에 濟州牧使로 도입하자 敎學에 힘쓰어 敎授 金良弼과 의논하여 明倫堂을 重修하고 庶民 子弟를 敎育하도록 하였다. 그는 제주도의 山川의 屈曲과 高低를 地圖로 그려 두었는데 乙卯倭變때 金秀文 牧使가 이 지도로 방어책을 세워 잘 막았다. 그의 文章은 아담하면서도 날카로웠으며 清白吏로서 이름이 높았다. 글씨를 잘 써서 遺筆이 筆史大觀에 收錄되었다.<sup>77)</sup>

林亨秀(1504~1547) : 平澤人으로, 字는 士遂, 호는 錦湖이며 別試文科에 급제, 會寧判官, 典翰 등을 거쳐 副提學에 승진했다. 1545년(明宗 即位) 乙巳士禍때 濟州牧使로 좌천되어 왔다. 그는 治政이 嚴正하고 民弊를 없애고 月溪精舍와 金寧精舍를 설립하여 지방 자제를 敎育하도록 하였다. 그는 학문과 文章에 뛰어났다. 遺筆이 筆史大觀에 收錄되었다.<sup>78)</sup>

金應南(1546~1598) : 原州人으로 字는 重叔 호는 斗巖, 文科에 급제, 藝文館, 弘文館에 登용되었다. 1583년 제주목사로 도입하였는데 재임(1583~1585)하는 동안 제주는 大饑年이었으므로 民弊를 없애고 백성들을 救恤하였다. 그 후 大司憲 吏曹判書, 左·右議政 등을 역임하였으며, 諡는 忠靖이다. 遺墨이 槿墨에 傳한다.<sup>79)</sup>

75) 「韓國書畫人名辭書」, 1959, p. 36.

76) 「筆史大觀」, 1988, pp. 79-80.

77) 上掲書, pp. 505-506.

78) 上掲書, pp. 947-948.

79) 「槿墨」(上卷), 1981, p. 24.

金尚憲(1570~1652) : 安東人으로 字는 叔度, 호는 淸陰, 石室山人이며 諡는 文正이다. 文科에 급제, 正言, 大司憲, 大司成, 大提學, 禮·工·刑曹判書, 左議政 등을 역임하였다. 그가 제주에 御史로 온 것은 1601년(선조 34) 6월 蘇德裕, 吉云節의 逆謀事件 수습을 위하여 校理때 왔는데 다음해 1월말까지 民情을 慰諭하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그는 제주에 머무르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日記를 써서 南槎錄이라 하였는데 그 당시 實情을 알아보는데 귀중한 史料가 되고 있다.<sup>80)</sup>

遺筆이 槿墨과 筆史大觀 등에 傳한다.

李選(1632~1692) : 全州人으로 字는 擇之 호는 芝湖 또는 小白山人이며, 시호는 正簡이다. 文科에 급제, 벼슬은 吏曹判書에 이르렀다. 1675년(숙종 1)에 제주에 凶年이 들었으므로 副護軍 李選을 巡撫御史로 보내어 粟 3만 4천석을 옮겨다가 賑恤하였다.<sup>81)</sup>

遺墨으로 書簡草가 筆史大觀에 收錄되었다.

## IV. 現存 書蹟

### 1. 金石文<sup>82)</sup>

#### (1) 古碑

① 三姓穴碑 : 史蹟 제134호로 지정된 제주시 이도1동 三姓穴 境內 「三姓穴」 세 글자를 새긴 고색창연한 碑가 서 있는데 이것이 三神人의 출현을 알리는 三姓穴 碑다. 書體는 楷書이고 後面에 「崇禎後四丙辰夏改豎」라고 새겨져 있어 1856년(哲宗 7)에 고쳐 세운 사실을 알 수 있다.<sup>83)</sup>

② 三射石碑 : 地方紀念物 제4호로 지정된 제주시 화북동 1380번지에 세워진 碑인데 碑前面 中央에는 「三射石碑」라 隸體陰刻되어 있고 碑 앞면 左右에는 「毛興穴古, 矢射石留, 神人異蹟, 交映千秋」(모흥혈이 아득한 옛날 화살 박힌들 그대로 남아, 3신인 기이자취 세월이 바뀌어도 오래도록 비치리라) 라는 글을 새겼고, 비 뒷면에 「庚午三月七

80) 「濟州先賢誌」, 1988, pp. 79-80.

81) 上揭書, p. 88.

82) 金屬·石屬 등의 耐久性 물질에 기록된 문자.

83) 「濟州의 文化財」, 1982, pp. 292~293.

日改豎」라 되어 있어 1930년에 고쳐 세운 것을 알 수 있다.<sup>84)</sup>

③ 郷賢祠遺墟碑 : 제주시 이도1동, 五賢壇境內에 세워진 碑로서, 高宗 30년 (1893) 1月 高景晔 등 士林이 모여 세웠는데 前面 中央에 「郷賢祠遺墟碑」라 楷書體로 陰刻돼 있다.

④ 冲庵 金淨 遺墟碑 : 위에 적은 같은 境內에 세워졌는데 中宗 15년(1520)에 流配되어 제주에서 賜死된 冲庵 金淨의 遺墟碑로서 일부 파손되어 파손된 부분을 볼 수 없는데 「增補 耽羅誌」에 보면 前面 「冲庵 金先生謫廬遺墟碑」라 했고 後面에 碑記가 새겨져 있다. 이 비는 哲宗 3년(1852) 11월에 牧使 白希洙가 글을 짓고 判官 任百淵이 썼다.<sup>85)</sup>

⑤ 尤庵 宋時烈 遺墟碑 : 위에 적은 같은 境內에 세워졌다. 近世朝鮮 中葉의 巨儒. 尤庵의 遺墟碑가 여러곳을 전전하다가 이것에 옮겨져 보존되고 있다. 前面에 두 줄로 「尤庵宋先生謫廬遺墟碑」<sup>86)</sup>라 楷書體로 새겼고 後面에는 金亮行이 짓고 李克生이 쓴 碑記가 새겨져 있다.

⑥ 蘆峯 金政 興學碑 : 위와 같은 境內에 세워졌다. 英祖 11년(1735)에 도입 英祖 13년까지 제주목사로 재임한 金政의 興學碑인데 이 비는 高宗 30년(1893) 10월에 三泉書堂에 세워졌던 것이나 三泉書堂이 헐리면서 이 곳으로 옮겨졌다.<sup>87)</sup> 碑前面에 「蘆峯 金先生興學碑」라 隸體로 陰刻되고 있다.

⑦ 桐溪 鄭蘊 遺墟碑 : 大靜邑 保城國民學校 正門앞 左側에 세워졌다. 光海君 때 大靜縣에 유배되어 10년 동안 謫居生活을 한 鄭蘊의 遺墟碑다. 碑 앞면에는 「桐溪鄭先生遺墟碑」<sup>88)</sup>라 楷書로 陰刻되 있고 뒷면에는 牧使 李源祚의 碑記가 새겨져 있다. 顯宗 8년(1842) 安城里에 세웠다가 1977년 4월 現위치로 옮겼다.

⑧ 李最應永世不忘碑 : 제주시 삼도2동 구제주경찰서경內에 세워졌다. 興宣大院君의 親兄이며 領議政을 지낸 李最應(1815~1882) 永世不忘碑다. 앞면에는 「領相李公最應永世不忘碑」라 隸書體로 새겼고 뒷면에는 「崇禎紀元後五庚辰孟秋上澣」으로 되어

84) 上掲書, pp. 294-295.

85) 上掲書, pp. 296-297.

86) 上掲書, pp. 298-299.

87) 上掲書, pp. 300-301.

88) 「濟州市의 文化遺蹟」, 제주시, 1992, pp. 109-110.

89) 「濟州의 文化財」, 1982, pp. 302-303.

있어 高宗 17년(1880) 음7월 上旬에 세웠는데 濟州判官 宋祥淳이 글을 짓고 進士 金亮洙가 글을 쓰고 비를 세운 사람은 牧使 白樂淵이다.<sup>90)</sup> 碑記는 제주도에 特典을 베풀어주신 은덕에 고마움을 기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⑨ 梁憲洙 永世不忘碑 : 위와 같은 경내에 세워졌는데, 丙寅洋擾(고종 3~1866) 프랑스 艦隊를 격퇴시켜 명성을 올렸던 梁憲洙 장군의 紀念碑가 東軒址에서 있다. 前面에는 「使相梁公憲洙永世不忘碑」라 楷書體로 새기고 左側面에 「同治六年三月 日營牧鄉將吏及各廳」이라 새기고 있어 高宗 4年(1867) 3월에 牧府内の 各官廳이 合同으로 建立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sup>91)</sup>

이밖에도 古碑가 많은데 紙面의 제약으로 碑의 名稱만을 列記하여 둔다.

東軒址의 「使相鄭公岐源去思碑」, 朝天비석거리의 「使相鄭公岐源永世不忘碑」, 金寧비석거리의 「牧使鄭公岐源善政碑」, 涯月里的 「鄭公岐源追思碑」 등 네 군대의 비는 같은 사람의 비이다.

「白希洙恤民善政碑」는 東軒址와 禾北 비석거리의 「牧使白公希洙恤民善政碑」, 朝天비석거리의 「使相白公希洙清德善政碑」 등 세개소의 것은 같은 사람의 비이다.

東軒址의 「使相趙公義純不忘碑」, 제주鄉校 境內的 「牧使趙公義純校宮改修碑」 등 2개소의 것은 같은 사람의 비이다.

禾北 碑石거리에 「牧使尹公久東清德善政碑」 「牧使李公源達恤國善政碑」 「牧使李公玄功恤民善政碑」 「牧使具公載龍去思碑」 「牧使洪公圭去思碑」 「牧使任公憲大去思碑」 「察理李相公圭遠清德碑」 「判官高公景峻去思碑」 「助防將洪公花里去思碑」 등이 있고 朝天 비석거리에는 「牧使蔡公東健恤民善政碑」 「牧使金公嘉翼○○碑」 「使相李公宜植恤民善政碑」 「使相李公源達去思碑」 「通判金公膺友善政碑」 등이 있다.

濟州鄉校 境內에 「牧使金公夢燿尊聖待士碑」 「沈使相永錫移建鄉校碑」 「李使相行教四學改建碑」 「使相張公寅植崇儒右文碑」 「御使沈公東臣去思碑」 「牧使趙公義純校宮改修碑」 「牧使白公樂淵興學碑」 등이 있다.

道內에 대표되는 孝子 烈女碑로 북제주군 애월읍 금성리 마을 입구에 서 있는 「忠孝嘉善大夫李公弼完之間」, 구좌읍 금녕리 비석거리에서 있는 「孝子金稱之間」, 翰京面 新

90) 上揭書, pp. 306-307.

91) 上揭書, pp. 308-309.

昌里 일주도로변 남쪽 언덕에 서 있는 「孝子高允文之間」, 애월읍 락지리 마을회관 앞에 서 있는 「烈女寺婢金天德之間」, 朝天邑 新村里 新村國民學校 正門앞 일주도로변 남쪽에 세워있는 「烈女私婢國只之間」 등이 있다.

(2) 磨崖銘 : 마애명은 石壁에 글자를 새겨 놓은 것으로서, 제주시의 名勝地 梧登洞 俗稱 訪仙門(들렁귀) 岩壁에 제일 많고, 도내 몇개소 암벽에 詩句 등이 새겨져 있다.

① 訪仙門 磨崖銘

登瀛丘 洪重徵作 : “不寶呀然處, 巖花無數開, 花間管絃發, 鸞鶴若飛來”<sup>92)</sup> (영구에 올라 흥중징 지음. 들렁 입을 크게 벌린 곳 바위 틈 사이로 봄 꽃 만발하였네. 꽃사이로 봄 노래 피어나면, 난학이 아스라이 날아든다네.)는 草書體로 陰刻하였다.

喚仙臺 金永綬作 : “前壑乾坤大 石門日月閑, 莫能無物知, 出箇有神山, 花老三春盡 巖下太古顏, □□□□至, 知是在仙間”<sup>93)</sup> (환선대, 김영수 지음, 앞끝짜기 넓게 트이고, 들문엔 해와 달이 쉬어, 사물을 분간할 수는 없으니, 가는 곳마다 신령 깃든 산이다. 꽃은 지어 봄은 다 가고, 바위 밑은 태고의 모습으로, ……이르니, 이게 바로 신선이 사는 세상임을 알겠네.)는 草書體로 陰刻하였다.

次壁上韻, 韓鼎運 作 : “亂石沈雲合, 幽花向日開, 仙人不可見, 我輩祗空來”<sup>94)</sup> (바위에 시를 짓다. 한정운 지음, 뾰죽 뾰죽한 들은 구름에 잠겼고, 꽃은 조용히 해를 보고 피었다. 신선은 만나볼 수 없으니 우리는 헛된 걸음 하였네.)는 草書體로 陰刻

李義謙作 : “浦口暮紅日, 山肩荷白雲, 清遊宜此夕, 携酒且論文”<sup>95)</sup> (포구는 붉은 해를 삼키고, 산 자락에 흰구름이 깔렸네. 조출한 술자리는 오늘밤이 좋겠지. 술을 마시며 시를 논하세)는 行書體로 글을 새겼다.

② 龍淵 磨崖銘

제주시 용담2동 용연 암벽에 새겨진 마애명이다.

任觀周 作 : “白鹿潭流水, 爲淵大海濶, 兩崖皆翠壁, 歸客片舟尋” (임관주 지음, 백록담 물이 흘러, 넓은 바닷가 연못이 되었고, 양안 모두 푸른 벽 사이로 돌아 갈 나그네는

92) 「濟州市의 文化遺蹟」, 1992, pp. 124-127.

93) 上掲書, p. 125.

94) 上掲書, p. 125.

95) 上掲書, p. 125.



조각배를 찾는다)는 행서체로 글을 새겼다.

③ 節婦巖 磨崖銘

한경면 용수리에, 이 마애명은 烈婦濟州高氏(康士喆처)의 節概를 후세에 기리기 위하여 高宗3년(1866) 大靜判官 愼載祐가 현위치 自然石에 篆字體의 大文字로 「節婦巖」<sup>96)</sup>이라 橫刻한 것이다.

2. 扁 額 : 편액은 종이나 또는 널판지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방안이나 문위에 걸어 놓는 額子이다.

(1) 觀德亭內的 扁額

① 觀德亭 : 관덕정은 제주시 삼도1동 983번지 광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按撫使 辛叔晴이 兵士의 訓練과 武藝修練場으로 使用키 위하여 世宗 30년(1448) 가을 創建한 것이다. 당시 觀德亭의 扁額은 安平大君 李瑬이 쓴 것이나 火災로 없어지고 지금 建物中央 玄關에 걸려 있는 「觀德亭」 懸板은 鵝溪 李山海(1539~1609) 筆跡<sup>97)</sup>인데 遒勁老熟한 行書 大字이다.

② 耽羅形勝과 湖南第一亭

亭內 天井에 걸려있는 「耽羅形勝」은 節制使兼防禦使 金永綬(1778~1780 在任)의 行書 大字 筆跡이며, 「湖南第一亭」은 節制使兼防禦使 朴善陽(1881~1883 在任)의 行書 扁額이다.<sup>98)</sup>

(2) 濟州鄉校內的 扁額

① 明倫堂 : 명륜당은 儒學을 講學하여 人材을 양성하는 講堂으로서, 제주시 용담1동 제주향교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增補耽羅誌에 보면 「明倫堂」은 中宗 31년(1536) 牧使 沈連源이 重修하고 正祖 2년(1778)에 牧使 黃最彦이 漢城太學館扁額 朱夫子筆을 模揭하다<sup>99)</sup>라고 하였다.

96) 「濟州의 文化財」, 1982, pp. 316~317.

97) 金尚憲, 「南槎錄」, 永嘉文化社, 1992, pp. 112~115.

98) 김봉욱, 「제주풍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87, p. 92.

99) 「增補耽羅誌」, 1954, p. 213.

② 啓聖祠 : 五聖(孔子·顔子·子思·曾子·孟子)의 아버지의 位牌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祠堂으로서 啓聖祠라 쓴 扁額 2個가 사당 안팎으로 걸려 있는데 밖에 懸板은 哲宗 5년(1854) 牧使 睦仁培가 啓聖祠를 創建하고 題額은 金龍徵<sup>100)</sup>이 썼다. 안쪽 懸板은 1989년 4월 5일 金榮洽과 金順謙이 啓聖祠를 訪問하고 돌아보든 중 同懸板落款을 複寫하여 確認한 결과 石農 李鍾愚(1801~? 함경감사 역임) 筆跡으로 判明된 바 瀾達 重厚한 行書體이다.

### (3) 大靜鄉校內的 扁額

① 明倫堂 -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대정향교 경내에 위치하고 있다. 「明倫堂」 扁額은 純祖 때 縣監 변경봉이 朱子筆를 본받아 揭示하였다.

② 疑問堂 - 道光 26년(1846) 大靜人 訓長 姜師孔이 이고장에 流配왔던 秋史 金正喜에게 請하여 「疑問堂」<sup>101)</sup>을 懸額하였다. 「道光 26年 丙午 11月日 晉州後人 姜師孔請 謫所前參判金公正喜 題額謹揭」

### (4) 三姓祠內的 扁額

① 三聖殿 - 제주시 이도1동 三姓祠 境內에 있다. 三聖殿은 耽羅始祖 三乙那의 位牌를 奉安하여 致祭하는 곳으로 題額은 李 壩(1877~1955)이 쓴 것이다. 李 壩은 朝鮮末期의 王族으로 初名은 平吉 호는 晩悟 高宗의 五子 義親王이다. 「三聖殿」이라 크게 橫書하고 落款부위에 春庵이라 하였다.<sup>102)</sup>

② 崇報堂 - 三姓祠內的 「崇報堂」은 祖上의 恩德에 보답한다는 뜻으로 1849年(헌종15) 牧使 張寅植에 의하여 建立되었다. 이 板額이 原本은 日本 天理大 資料館에 보관된 것으로 傳해진다. 崔基南의 筆蹟<sup>103)</sup>이다.

### (5) 戀北亭 扁額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에 있다. 연북정은 朝鮮 초기의 건물로서, 使臣들이 나들이할

100) 上揭書, p. 217.

101) 「南濟州郡誌」, 南濟州郡, 1986, p. 752.

102) 「濟州道一般動産文化財」, 1991, p. 226.

103) 上揭書, p. 227.

때 쉬어 가도록 하였고 북녘의 임금에 대한 사모의 충정을 보낸 곳으로서 宣祖 23년(1590) 李沃牧使가 당시 朝天館을 重創하고 雙壁亭이라 題하였는데 宣祖 32년(1599) 成允文牧使가 重修하고 戀北亭으로 改題하였다. 1973년 建物を 修理하였다. 현 「戀北亭」 扁額은 竹岩 高順欽의 行書 筆蹟이다.<sup>104)</sup>

### 3. 名士筆蹟

李承晩(1875~1965) : 號는 雋南, 大統領으로 在任時인 1955년 4월 6일 2년제 道立 濟州初級大學이 4년제 道立 濟州大學으로 昇格되자 李承晩은 大統領으로서 大學 發展 祝賀의 뜻으로 「濟州大學」 題額을 行書體로 揮毫하여 주었다. 이 懸板은 國立大學으로 昇格될 때까지 正門에 걸었다가 지금은 대학교 박물관에 保存되어 있다.<sup>105)</sup>

朴正熙(1919~1979) : 5~8代 大統領으로 在任하는 동안 제주도 개발에 關心이 많았던 그는 重要事業部門에 대하여 揮毫를 남겼는데 그 筆蹟은 다음과 같다.

五·一六道路 石刻文 : 이 石刻文은 제주시 觀德亭에서 서귀포시 남제주군청 앞까지 제11호선 구간을 橫斷하는 道路가 1963년 2월 6일 各령 제1191호로 國道로 指定되었는데 5.16 때 만들어진 도로라 해서 朴大統領이 「五·一六道路」라 命名하고 이를 楷書體로 써서 높이 2m의 自然石에 陰刻하여 山泉壇 북쪽 도로변에 세워져 있다.<sup>106)</sup>

望洋亭 懸板 : 1966년 제주시 사라봉 頂上에 八角亭 亭子를 지었는데 당시 도지사 鄭雨滉이 大統領에게 上申하여 亭名을 「望洋亭」이라 揮毫로 부여받고 제주시장 姜泰植에게 전달하여 당시 제주시청 공무원 金順謙이 板刻하였다.<sup>107)</sup>

抗蒙殉義碑 :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缸波頭城에, 고려 元宗 때 蒙古의 침략으로 쫓기했던 三別抄軍의 護國精神을 함양하고 총화단결을 다짐하는 國民敎育場으로 삼고자 「抗蒙殉義碑」를 1977년에 세웠는데 碑 前面 題字를 朴正熙 大統領이 行書體로 揮毫하였다.<sup>108)</sup> 後面 沿革은 李瑄根이 짓고 金忠顯이 썼다.

의병항쟁기념탑 : 제주시 사라봉 慕忠祠 境內에 1977년 1월 세워진 「의병항쟁기념탑」

104) 戀北亭 扁額은 竹岩 高順欽 썼다. (筆蹟寫本 金順謙 소장)

105) 필자가 제주대학교에 확인하여 밝혔다.

106) 「濟州道誌」, (第2卷), 濟州道, 1993, p. 1165.

107) 朴正熙 大統領 親筆인 「望洋亭」 題額을 1966년 金順謙 板刻하고, 제주시장 姜泰植이 懸액하였다.

108) 「濟州의 文化財」, 전1982, pp. 168~169.

글씨를 朴正熙 大統領이 揮毫하였다.<sup>109)</sup> 塔下部 金錫允 高仕訓 등 行狀文은 金性澤과 金順謙이 썼다.

金基昇(1909~ ) : 書藝家 호는 原谷. 濟주시 아라동 2464번지에 位置한 「高麗中書侍郎平章事上柱國 文敬公高兆基墓碑」를 李殷相이 글을 짓고 金基昇<sup>110)</sup>이 썼는데 遒勁 濶達한 楷書體 筆致라 하였다.

金忠顯(1921~ ) : 書藝家 호는 一中 또는 찬내, 藝術院會員, 濟주시 봉개동 명도암에 위치한 「明道菴先生遺墟碑」를 國文學者 李崇寧이 글을 짓고 金忠顯<sup>111)</sup>이 썼는데 點劃豊美한 隸書體다. 明道庵은 金晉鎔의 호며 비는 1965년 10월에 세웠다.

金膺顯(1927~ ) 書藝家. 호는 如初이며, 東方研書會會長으로 後進을 養成中, 濟주시 아라동 山川壇 境內 舊道路 西側에 세워진 「牧使李約東先生漢拏山神壇紀蹟碑」를 前 濟州大學校總長 玄平孝가 글을 짓고 金膺顯이 썼다. 비의 前面 글씨는 古風質朴한 好太王碑 隸書體 筆意로 썼고, 碑陰은 遒勁逼古한 楷書體다. 비는 1990년 10월 漢拏山神祭壇復元 및 紀蹟碑 建立推進委員會가 세웠다.

## V. 現在의 書藝活動

### 1. 書藝團體

濟州도내 서예단체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漢字·한글 併用書藝 (괄호안은 創立年度 및 서예를 지도하는 사람)

- 瀛州研墨會(1965. 7. 15. 서클 모임), ○ 濟州藝墨會(1971. 11. 26 故 金性澤, 金順謙), ○ 濟州素墨會(1973. 5. 5. 玄中和), ○ 濟州書藝教育研究會(1974. 서클 모임), ○ 西歸浦素墨會(1977. 4. 10. 玄中和), ○ 正硯會(1982. 2. 朴泰俊), 硯友會(1983. 6. 21. 玄元之), ○ 尚墨會(1984. 3. 玄汝植), ○ 友墨會(1984. 3. 宋元和), ○ 同硯會(1989. 1. 11. 金順謙), ○ 韓國書藝協會濟州道支部(1989. 5. 13. 서클 모

109) 김봉옥, 「김만덕전, 의병항쟁기 및 조봉호전」, 출판도서 제주문화, 1990, p. 120.

110) 「高氏世錄」, 高氏中央宗門會, 1973.

111) 「光山金氏文簡公派世譜」(卷之一) 光山金氏濟州道宗親會, 1979.

임), ○ 濟州道書藝家協會(1990. 3. 25. 서클모임), ○ 濟州道博物館書友會(1990. 3. 金順謙), ○ 韓南硯墨會(1992. 3. 8. 金順謙)

(2) 한글 서예 (괄호안은 創立年度 및 서예를 지도하는 사람)

○ 한글회(1985. 현병찬), ○ 한묵회(1992. 현병찬)

이상 團體들은 隨時로 研修會를 갖거나, 展示會 開催 및 會員들이 大韓民國書藝大展을 비롯하여 全國規模의 公募展 및 濟州道美術大展(書藝部)에 出品하는 등 進取的인 書藝活動을 하고 있다. 특히 1992년에는 「제4회 대한민국 서예대전」에서 한글을 쓴 玄昞璫이 최고상인 대상을 차지했고, 「제19회 제주도 미술대전」(서예부문)에서는 한글을 출품한 尹鎬三이 榮譽의 대상을 차지하므로써 제주도 한글서예가 全國 上位圈에 있음을 誇示하고 있다.

여기에 附言하여 들 것은 제주도내에는 현재 여러 書藝學院들이 散在되어 있는 바 서예 학원은 개인의 事業性格으로 判斷될 수도 있으므로 本考에서는 다루지 아니하였다.

## 2. 元老 書藝人

玄中和 : 1908年生으로 호는 素菴이며 19세때 日本에 건너가 早稻田大學 政經學科에서 修學한 후 日本 書道名家인 松本芳翠 辻本史邑 두 스승 밑에서 書法基礎를 研磨하고 日本書道院 代議員을 歷任하고, 1955年 歸國 濟州師範學校와 西歸中學校에서 漢文教師로서 학생들 書藝指導에 힘썼다. 1967년부터는 國展書藝部 招待作家가 되면서 審査委員을 역임했고, 1969년에는 제주도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濟州道文化賞을 受賞하였다. 1973년 5월 濟州素墨會를 創立하였고 이후 연이어 西歸浦, 木浦, 大邱, 釜山等地에서도 素墨會를 창립하여 弟子를 養成하는 등 그 範圍가 全國的으로 擴散되었다. 1983년 12월 臺灣 國立歷史博物館의 招請으로 素菴書法展을 가짐으로써 國際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朴泰俊 : 1926생으로 호는 海丁 또는 守石軒이며, 일찌기 日本으로 건너가 大阪市立美術學校를 졸업하고, 제주도 교원양성소를 수료한 후 1956년 五賢高等學校 教師을 거쳐 1973년 同德女大 講師를 歷任하였다. 한 때 國會書道會를 指導하였던 그는 1981년 國

展招待作家가 되었으며 1985년에는 大韓民國美術大展 書藝部審査委員을 역임했고 1989년 大韓民國書藝大展運營委員과 藝術院賞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그는 후배양성을 위하여 현재 尚筠會(서울), 耽書會(서울), 正硯會(제주) 등을 지도하고 있는데 서울 大韓民國書藝大展과 제주도미술대전에서 가장 많은 入特選者를 輩出하고 있다.

### 3. 필자의 書跡

필자의 서적 중 그 일부 (公的인 것)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墓忠祠. 「建立文」 및 「醫女班首金萬德義人墓碑」<sup>112)</sup> : 제주시 紗羅峯 남쪽 기슭에 위치한 모충사 경내에 1977년 1월 道民의 誠金으로 세웠는데 글은 총력안보 제주도협의회서 짓고 글씨는 예서체로 썼다.

○ 朝天 만세동산 「己未運動紀念碑」<sup>113)</sup> : 1978년 12월, 北濟州郡에서 세웠는데 글은 梁重海 짓고 글씨는 隸書體로 썼다. 이 碑는 1991년 제일교포 김모씨가 만세동산 聖域化 사업으로 三·一運動紀念碑로 改建하면서 허물었는데 碑의 보존여부는 未詳이다.

○ 「漢拏山國立公園」 標識石刻 : 第2橫斷道 어리목 入口 앞 남쪽과, 城板岳 入口 앞 쪽에 1978년에 세웠는데 隸書體로 썼다.

○ 天帝樓 扁額 : 中文觀光園地內 仙臨橋西側 亭子 「天帝樓」 題額을 예서체로 썼고 1983년 봄에 懸額하였다.

○ 陸軍第22師團 部隊訓 「내 생명 조국을 위해」 「唯我爲國忠節」 : 南韓東部 最北端 駐屯 제5861부대 政訓參謀 曹漢植中領의 書屬 書信을 받고 1986년 7월에 한글 한자를 예서체로 쓰고 郵送하였다. 며칠 후 師團長 陸軍少將 車興烈로 부터 고맙다는 答禮로 기념품을 보내왔다.

○ 愚堂圖書館 「朱文公勸學文」 1986년 우당도서관 개관 2주년을 기념하여 예서체로 썼고 도서관 현관 정면 空間에 걸었다.

○ 韓蘇頂上會談 祝賀記念書 : 1991년 4월 19일 역사적인 한소정상회담이 제주에서 開催됨을 축하기념하여 「韓蘇頂上會于濟州, 太平天下誇於權域」(한소 대통령이 제주에

112) 김봉욱, 前掲書, p. 94. & 禹樂基, 濟州道 國民觀光, pp. 221-222.

113) 「濟州教育史」, 濟州道教育委員會, 1979, p. 90.

서 회담하니, 태평천하를 한국땅에서 자랑하도다) 2行 16字 예서체로 쓰고 簇子를 제작하여 제주도에 寄贈하였다.

○ 「白馬高地의 英雄 康承宇少尉像」銅像題額 및 「趣旨文」: 6.25전쟁 당시 白馬高地 전투에서 殺身成仁의 精神으로 敵 陣地를 肉彈으로 분쇄하고, 1952년 10월 12일 散華한 “故 康承宇少尉”의 고귀하고 忠勇스러운 護國精神을 널리 顯彰하기 위하여 제주시 일도2동 자유총연맹제주도지회 건물 西側에 銅像과 趣旨文을 建立하였다. 글은 玄谷 梁重海가 짓고 글씨는 隸書體로 썼다.

이 銅像 및 趣旨文은 1991년 7월 15일 <故 康承宇少尉紀念事業推進委員會>가 세웠다.

## VI. 要約 및 提言

이상에서 韓國書藝史의 흐름을 概觀하여 보았고, 濟州書藝의 形成過程을 살펴보았다. 이를 要約해 보면

1. 한국서예사의 흐름은 우리나라에 漢文字가 傳來된 以來 三國時代까지에는 書藝史 資料를 古碑나 墓誌 등에서 찾아볼 수 밖에 없고, 統一新羅時代부터 高麗, 朝鮮時代에 이르러서는 各種文獻, 石碑, 典籍, 書畫 등을 통하여 書藝史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2. 濟州書藝의 形成過程을 살펴보면 옛적에 耽羅國은 獨立的 位置에 있었다고 하나 書藝史의 史料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 麗末鮮初에 들어와서 高適, 高得宗 등이 遺筆이 보이기 시작했고 조선시대 500년을 통하여 제주에는 政治的 流配人들이 대거 入島하였으므로 도민들은 그들의 學問的 影響을 많이 받았고 朝政의 抑佛崇儒 政策으로 官學과 私學을 적극 장려하였으니 漢文學을 배우는 과정에서 書藝人들이 簇出하게 되었다. 또한 도내에 散在되어 있는 古碑, 磨崖銘, 扁額등도 이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朝鮮末期부터 日帝時代까지에는 抗日的 精神이 透徹하였던 선비, 學者, 文人들이 글씨에도 뛰어났고 이들 名士中에는 日本에 건너가 韓國書藝의 秀越性을 그 땅에 보급한 사람도 있었으니 제주의 서예문화가 海外에까지 뻗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先人들은 逆境속에서도 實用과 教養으로 書藝를 研磨해 왔다.

4. 해방후 오늘에 이르러서 제주의 書藝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여도 過言은 아니

다. 그러나, 제주 書藝文化를 깊이 있게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事案들을 克服하고 實行에 옮겨져야 한다.

① 各書藝團體가 並立하고 있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聯合體를 構成하여 綜合的인 行事를 執行할 수 있어야 하고 要件을 갖춘 書藝團體가 제주도 문화예술단체 집합체인 韓國藝術文化團體 濟州道支會에 加入이 되어 名實相符한 제주도 예술문화가 총체적으로 발전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書學理論 研究發表 및 展示會 書評會 등을 通하여 質的 向上을 圖謀하려는 書藝文化 風土造成 努力이 필요하다.

③ 他地方과의 交流 및 國際交流를 通하여 書藝文化의 變化 등 國際흐름 정보를 교환, 연구하므로써 書藝의 價値位相을 定立해 나가야 한다.

④ 地域的 特殊性에 비추어 제주대학교와 도내 전문대학에 「書藝科」를 설치하여 그림, 조각, 공예 등과 같은 서예분야 전문인을 양성하여 전통적인 서예문화를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규 제도권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理論과 實技를 兼備한 서예전문인 양성은 사설학원이나 개인 수련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육지부 일부 대학에 書藝科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주목 할 만한 사실이다. (예 : 원광대학, 계명대학, 서예과).

⑤ 도내에 散在되어 있는 書藝文化財인 古碑, 磨崖銘, 扁額, 典籍, 古文書 등 書藝史的 資料를 바로 인식하고 研究 活用하여야 한다.

⑥ 우리 書藝文化는 東洋圈에 있어서 東洋特有의 造形藝術文字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漢字, 한글, 假名(かな)이 그것이다. 사람의 智慧로 創制된 이 表意 表音文字는 人類와 더불어 永遠히 運命을 같이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藝」와 中國의 「法」과 日本의 「道」가 한데 어우러져 東洋精神을 더욱 發現할 수 있도록 研究 啓發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들 특히 書藝人의 使命이자 實務임을 再覺醒해야 한다.